

#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콘텐츠에서의 성별언어에 대한 인식

## Cognition of Teachers' and Students' Awareness on Gender for the Content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박덕재

광운대학교 영어영문학과

Deok-Jae Park(park@kw.ac.kr)

### 요약

본 연구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연구 중에서 언어와 성의 문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교육콘텐츠와 교사-학생의 인식의 관계를 조사하였으며, 또한 외국어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성별언어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성별언어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교육콘텐츠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 및 교사, 학생의 소통은 언어습득의 효과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19명의 교사와 71명의 학습자와의 인터뷰,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교사는 89.4%가 여성언어가 존재함을 인정하였고, 학생은 49.6%가 성별언어에 대하여 차이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과거보다 언어가 중성화되고 있으며 굳이 남녀 성별언어를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에 기인하는 사회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문화를 통한 언어교육이 교육콘텐츠의 역할이므로 경우와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이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 편향된 여성의 지위, 역할, 언어 등이 교재내용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는 교사, 학생들의 이해와 수용이 필요하고 교육콘텐츠 개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다.

■ 중심어 : | 성별언어인식 | 교육콘텐츠 | 언어교육 |

###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gender studies with respect to language education for KFL(Korean as a foreign language) students. It also attempts to view the role of gender as exerting influence on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and surveys KFL teachers' awareness of the role of gende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It is conceivable that teachers who are aware of differences between female and male will be able to take these into account in their teaching; in doing so they will be more effective in their teaching than if they were to teach in ignorance of these differences. The survey for the teachers' awareness of gender difference was conducted through teachers' discussion as the follow-up measure of the questionnaire. A few teachers do not have a clear idea about the importance of gender differences in language teaching, but the majority have cognizance of the matter. For this research, a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71 subjects, consisting 37 intermediate KFL students and 34 advanced KFL students. The result of the questionnaire reveals that 50.4% subjects use their words and intonation without recognizing the gender difference, on the other hand, 49.6% subjects recognize the gender differences in Korean language use. The result should be adopted as a sociolinguistic factor for the contents of second language education.

■ keyword : | Gender Difference |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Teachers' and Students' Awareness | Language Education |

\* 본 연구는 2007년도 광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접수번호 : #090717-001

심사완료일 : 2009년 08월 13일

접수일자 : 2009년 07월 17일

교신저자 : 박덕재, e-mail : park@kw.ac.kr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의 제2언어 연구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언어와 성(language and gender)<sup>1)</sup>의 문제가 관심분야가 되고 있으며, 인접학문과의 연계, 언어학 이론과의 접목 등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언어학자들에 의해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술적 연구를 거치고, 페미니스트 언어학자들에 이르러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언어를 비교하는 연구 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차별받는다라는 인식에 이르고 있다. 그 가운데 성(gender)이 남녀 언어의 차이를 만드는 변이가 된다는 이론은 언어교육의 현장에서도 중요한 논의점이 되고 있다.

Sunderland가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어 교육과 성(gender)의 관련문제를 16가지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1]. 그 가운데 교사의 인식과 교실 상호작용이 주요한 문제로 취급되어 있다. 외국어 교육은 주로 교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재와 교사의 말은 해당언어의 입력으로서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교실수업에서 교사와 교재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최근에 많은 교재가 출판되고 있고 또한 교재연구가 활발하지만, 교재에서 다루고 있는 화제가 한국의 문화와 사회를 반영하는 부분이 미약하고, 주제의 편향된 부분도 있다고 보인다. 언어와 사회의 중요한 연관성을 고려할 때, 교실 수업에서나 교실 밖에서 학생들은 어떻게 해당언어의 문화를 이해하고 성별언어를 구별하고 있는지 조사 분석해야 할 일이다. 또한 교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는가를 알기위하여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알아보고 교실수업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 성별언어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차별언어가 아닌 사회언어의 변이로 여긴다면, 교사의 말, 성차별적인 교재 내용, 여교사의 분포, 여성의 언어능력등도 고려할 사항이다. 외국어로서 한국어교사에 관한 교육이 아직은 미흡한 단계이고 또한

각 교육기관의 교사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사실<sup>2)</sup>이 주목할 만한 일이며 이는 영국의 외국어교사도 마찬가지이다.<sup>3)</sup> 한국어에서 성에 따른 언어의 차이를 생각할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다.

그동안 국어의 여성어 연구는 꾸준히 있어왔으며, 특히 한국여성개발원[2]의 성차별어 예방을 위한 연구로 인하여 연구의 폭이 넓혀져 왔다고 본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분야에서 성별언어가 연구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또한 문법과 어휘에 관련된 것 이외에 언어와 사회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된다.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어의 언어적인 면과 사회-문화적인 면을 충분히 이해하여 학습자에게 교수해야하므로 교실수업에서 교사의 말은 매우 중요한 입력이다.

교사의 말(teacher talk)에 대한 정의는 외국어를 가르치는 소양에 포함되어 나열할 수 있다. 그러나 언어에 따라서 남성적인 언어와 여성적인 언어가 구분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일본어의 경우는 언어교육 내용에서 분명하게 구별이 되지만, 한국어의 경우는 매우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Brown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남성의 언어와 여성의 언어가 통사적인 변이나 억양패턴에서 구별이 된다고 했으며, 여성 선생님에게서 일본어를 배운 미국 남성이 "여자처럼 얘기 한다"는 말을 흔히 듣는다고 했다. 여성 선생님에게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자연스럽게 여성적인 표현의 말을 배우기가 쉽고, 남성 선생님에게서 수업을 받은 경우는 조금 딱딱한 표현의 남성적인 어미의 말이나 형용사를 사용하기 쉽다고 본다[3].

교육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재가 과연 문화적 내용을 객관성 있게 전달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교실수업에서 해당언어인 한국어를 문화이해와 함께 습득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교사들의 성별언어에 대한 인식과

1) 'sex'를 단지 생식에 관련된 생물학적인 분류로 생각하는 반면에, 'gender'는 생물학적인 성에 대한 사회학적 성의 의미로 정의하고 있다. 생물학적 성(sex)은 생득적으로 타고난 성을 의미하고, '사회적 성(gender)'은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아 변화과정에서 획득된 정체성과 성역할 행동 및 개념을 말한다

2) 다음은 8개 대학의 교사 숫자이다. \* ( )안의 숫자는 남성 한국어 교사 수이다.

연세대 104(4), 이화여대 37(1), 선문대 29(8), 고려대 26(3), 건국대 23(2), 서강대 21(0), 홍익대 10(0), 평문대 17(2)

3) 영국의 제2언어교사가 여성이 대부분이라는 조사가 발표된바 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재와 교육콘텐츠의 문화사회적 평가를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2. 연구과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국내 교육기관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강의하는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성별차이에 따른 남성언어와 여성언어의 존재에 대하여 교사들의 설문 인터뷰를 통하여 교육 콘텐츠의 현주소를 알아본다.

둘째, 현재 교육기관에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수업하고 있는 학습자들이 성별언어를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중·고급 학생들의 차이점을 분석한다.

셋째, 교사와 학생들의 견해와 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콘텐츠에서의 성별언어의 정체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언어와 성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남녀의 사회적 불평등에서 오는 남녀의 언어차이에 대한 선험적 연구이었다. Lakoff는 *Language and Woman's Place*에서 주장하기를 연구자들은 남녀 간의 언어적인 불공정을 찾아내어야 하며, 남성의 우월성과 여성의 미약함에서 오는 심리적인 피해를 인식해야한다고 했다[4]. 그 이후 성별의 차이에서 오는 남녀의 언어 차이를 남성이 지배하고 여성이 종속되는 사회구조의 영향으로 보는 견해와 사회언어학적인 변인으로 보는 견해로 나뉘지게 되었다[5].

이와 같은 국외의 연구결과는 국내의 성별언어의 차이에 대한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선희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어머나, 어머, 어머머, 어쩔, 아이, 피이, 치, 흥’ 같은 감탄사를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6]. 또한 어떤 상황을 강조하거나 설명할 때, ‘빨리빨리, 어머머머, 뉘니뉘니, 진짜진짜, 그래그래, 네네’ 같은 중첩어를 자주 사용한다고 했다.

한국어에 관한 성별차이의 연구는 특히 어말어미에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 대표적인 연구 중에 이석규는 남성은 격식체를 많이 사용하고 반면에 여성은 비격식체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 특히 의문문에서 남성은 낮춤형의 경우 ‘-(으)냐’체를, 여성은 ‘-니’체를 사용한다고 했다[7]. 임홍빈은 여성이 선호하는 어미는 ‘-어요, -지요’형이고 남성의 경우에도 어린이교육 현장에서는 쓰일 수 있다고 했다[8]. 김선희의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얼버무리는 말을 자주 사용해서 ‘그냥, 그것 같다’등의 모호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다[9].

흔히 남녀는 서로 다른 의사소통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Tannen의 말에 의하면 남녀의 의사소통 방법은 근본적으로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 Tannen의 주장에 의하면 여성은 친밀감, 합의, 상호의존적이라고 한다면 남성의 경우는 경쟁적, 독립적이며, 신분지위에 민감한 경향이 있다고 한다[10]. 성과 언어교육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여러 논문가운데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특히 언어학습 능력의 차이, 동기의 문제, 학습스타일과 책략, 교실 상호작용 등에 관한 것 들이다. Sunderland가 제기한 한 가지 문제는 언어에 관한 성의 차이는 여성의 미약함과 남성의 우세함이라는 고정관념이 언어사용에서 강화되어 왔다는 점이다[11].

Brown에 의하면 미국의 영어화자들 가운데 여자들이 남자 아이들 보다 더 표준어를 사용하며 이러한 패턴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진다고 한다. 여성들은 남자보다 자기들이 하는 말에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얼버무리는 말이나 상승역양의 말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3].

최근 들어 여성과 남성의 언어를 나눌 때, 어휘보다는 대화스타일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즉 여성의 스타일은 공손하고 차분하며 표준어를 사용하는 데 반해서 남성은 거칠고, 비속어를 많이 쓰며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사회언어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린 시절 성별 집단이 남녀 간의 대화스타일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여자 아이들은 서로 협동하고 비경쟁적인 관계에 맞는 언어를 사용한다. ‘Let’s...’ ‘We are

gonna...' 등의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 이와 반대로 남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조직 내에서 위계질서를 정립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지위를 내세우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Brown은 남성과 여성의 언어적 선택은 의사소통적 전략(communicative strategies)라고 설명하면서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 사회적인 동기유발로 인한 언어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성(gender)의 문제는 사회적인 요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언어에 있어서 성(gender)의 차이는 언어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즉 남성과 여성은 사회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사회언어학에 따르면 언어는 문화와 사회를 반영하고, 언어 사용자의 연령, 사회계층, 지역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유교 전통의 영향으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구조에서 나온 성차별어가 존재하고 있고[12], 이러한 경향은 남성 중심적인 문화권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서 영어의 경우도 'he'가 'human'을 대신하고 'everyone'이 대명사 'he'로 받았던 것이 이제 'they'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생물학적인 특성상 여성적인 표현의 어휘선택은 인정한다해도, 언어형태를 살펴볼 때, 'boys and girls', '남녀', '신랑신부'..등에서 남성을 앞에 두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하적인 표현의 경우 '연놈','계집사내'의 경우는 남존여비의 잔재로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한국어의 실태를 보면, 대중매체에서 사용하는 성역할의 고정화와, 인터넷에서의 성차별적 표현에 대한 연구[13]에 의하면 매체별 21일 간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3,481개의 성차별 사례, 신문의 경우 2,268개의 사례, 방송의 경우도 1,821개의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이면 많은 사례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본다. 국립국어원의 연구에 의하면, 언어에 존재하는 성차별이 심하고, 언어에 나타나는 성불평등이 사회문화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동시에 언어가 그러한 성불평등적인 사회구조를 유지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고 한다.

본 연구가 사회언어학 연구나 언어표현에 관한 연구가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교실에서 진행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의 연관성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위의 내용을 살펴볼 때, 교실수업의 상호작용에서 어느 만큼 사회의 영향이 미칠 수 있고, 언어와 사회의 밀접한 연관성이 연결될 수 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다고 본다.

### III. 연구방법과 절차

#### 1. 설문조사

##### 1.1 조사대상

본 조사연구의 설문 대상은 교사 집단과 학생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다음 내용은 각 집단별 구성 및 응답 현황이다.

##### 1) 교사집단

본 연구는 성별차이에 따른 언어 차이 연구에 관한 국내외 선행의 연구 결과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어교육기관의 한국어 교사 1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9명의 교사들은 모두 1년 이상 8년 정도 현장에서 교육하고 있는 교사들이며, 성별로는 여성 교사가 17명, 남성 교사가 2명이었다. 17명의 여성 교사들은 모두 같은 K대학에 근무하고 있으며, 연구자와는 모두 잘 알고 있는 관계이므로, 이메일 인터뷰 형식의 설문 조사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을 토론했다.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남성 교사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S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두 명의 남성 교사에게 의뢰하였다.

표 1. 연구대상 한국어 교사의 변인별 분포

	구분	인도(명)	백분율(%)
성별	남	2	10.6
	여	17	89.4
한국어교사경력	1-2년 미만	2	10.6
	2-5년 미만	10	56.6
	5년 이상	7	36.8
계		19	100

연구를 위한 이메일 인터뷰는 일반적으로 주장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문항에 관하여는 먼저 성별에 따른 남녀의 언어차이를 인정하고 또는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문으로 시작하였다. 그리고 교재 상에 나타난 성별의 역할이나 내용이 균형 있게 담겨있는가를 질문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재확인하도록 하였다.

설문내용의 구성은 예를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마지막 내용을 제외하면 여성교사가 여성언어를 사용하는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네 문제이고, 교재의 내용상에 대한 질문이 두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2) 학생집단

서울 소재 K 대학 언어교육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학생 71명으로부터 설문지를 통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4, 5, 6, 7 급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 4,5급은 중급, 6,7급은 고급으로 나뉘어 수업을 받고 있고 국적은 중국학생 65명과 몽골학생 6명이었다. 설문지를 중국어와 몽골어로 번역하였으며, 고급학생 10명만이 한국어 설문지에 답하였다. 번역은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되었고, 담당 선생님들의 설문지에 관한 설명을 듣고 실시되었다.

남녀의 비율은 중급 15명: 고급 22명 : 고급은 16명: 18명으로 전체적으로 31명이 남학생, 40명이 여학생이었다. 수준별로는 중급이 37명, 고급이 34명이었다.

표 2. 설문지 대상 학습자 국적별 분포

분류	중국	몽골	합계
중급	34	3	37
고급	31	3	34
합계	65	6	71

표 3. 설문지 대상 학습자 남녀 분포

분류	남학생	여학생	합계
중급	15	22	37
고급	16	18	34
합계	31	40	71

2. 설문분석

2.1 교사설문분석

긍정적인 답변 (소극적인 답변 1명 포함 89.4%)과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부정적인 표현(10.6%)을 비교해 볼 때, 대부분의 교사들이 여성적인 표현을 인식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교사 본인이 여성적인 언어의 사용을 한 적이 있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의견을 포함한 긍정적인 답변을 한 교사가 16명이었고, 큰 영향은 아니라 해도 여성의 표현을 인정하는 경우가 1명, 여성의 표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상관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2명에 해당되었다. 또한 교재에 있어서도 대부분 여성들이 만든 교재이므로 주제가 편중되어있고, 남녀의 사회생활에 관한 내용에서도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표 4. 성별언어에 대한 교사인식

구분	성별언어의 차이를 긍정하는 의견	성별언어의 차이를 수용하는 의견	성별언어의 차이를 부정하는 의견
내용	특히 감탄사의 경우 어머나 어머 등 정당한 상황의 이해 없이 학생 스스로 듣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나친 수식어의 표현과 억양은 여성의 표현에 속한다. 처음에는 여성언어와 남성언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의식적으로 격식체나 높임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남성학생이 여성언어를 사용하는 경우 어휘, 정형화된 어법 또는 어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여성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가 특별히 남성과 여성을 구분짓는 단어나 표현이 없는 언어이거나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성교사의 억양이나 자주 사용하는 어미( '-아요' '-네요' '-지요' ) 때문에 학습자들의 발화가 여성적으로 들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의식적인 표현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개인적인 차이이지 여성적인 언어 표현에 속하지 않는다. 어휘자체가 여성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사용하는 사람의 억양, 표정 등 비언어적인 요소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빈도	16	1	2
백분율	84.2%	5.2%	10.6%

표 5. 학생 설문지 문항번호와 내용

문항번호와 내용	중급	고급	총계	비율
1번 성별언어의 인식	19	20	39	54.5%
3번 남녀, 아버지어머니 어휘에서 남녀 차별의 인식	10	18	28	39.4%
4번 TV드라마나 영화에서 성별언어의 차이 이해	11	26	37	52.1%
5번 교과서 내용에서 성별언어의 차이 구별	6	10	16	22.5%
6번 '어머나' '너무너무' 등 감탄사 사용	18	27	45	63.4%
7번 '-인데요', '-하고요' 어미사용에 대한 인식	9	13	22	30.9%
8번 남녀 선생님의 말투나 표현의 차이 인식	13	13	26	36.6%
9번 교과서나 책의 남녀 대화의 구별이 가능한가	18	21	39	54.9%
10번 9번에서 구별이 가능할 때 말투의 차이를 보고 안 경우	14	16	30	42.3%
전체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대답한 중급과 고급의 비교와 평균율	108	164		49.6%

2.2 학생설문분석

- ① 1번 질문에서 남녀의 표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39명 (중급 19명/고급 20명)이었으나, 2번 문항에서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표현을 쓰는 부분에서는 대부분 '어머머, 어머나...' 등의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감탄사를 적었고, 어미의 사용에 차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 ② 3번 질문은 '남녀',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어휘에서 남성을 먼저 사용하거나 의사와 같은 직업에서 여성인 경우는 '여의사'라고 밝히는 경우에 대한 질문이었다. 남녀차별이라고 느끼는 답변은 28명 (10/18)으로 낮은 편이었고, 오히려 7번 문항인 어미의 차이를 느끼는 편이 많았다.
- ③ 4번 질문은 TV 드라마, 영화 등 미디어매체를 통하여 교실 수업이 아닌 문화, 또는 설정된 내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남녀의 언어 차이를 느꼈으며 호칭, 내용에 나타난 언어 차이를 알 수 있었음을 말해 주었다. 예측한 것 보다 많은 37명의 학생이 '네'라는 답변을 하였다.
- ④ 5번 질문은 4번 질문과 반대로 교실 수업에서는 차별을 느낀 적이 있다는 답이 매우 적어서 16명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4, 5번을 고려할 때, 교실 수업의 내용은 교과서 위주로 진행되고 교사의 말에 한정되기 때문에 본 연구의 내용에 관련된 남녀 언어의 차이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⑤ 6번 질문에서는 감탄사 "어머나" '너무너무' 와 같

은 감탄사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수인 45명이 '네'라고 긍정적인 답을 하였다. 이는 처음 질문에서 남녀 언어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못했던 학생들도 질문이 진행됨에 따라, 감탄사에 여성 특유의 표현을 알 수 있었음을 나타내었다.

- ⑥ 7번 문항 어미의 구별은 중급과 고급 학생의 차이가 있어서 '-요'체와 격식체 '비니다'를 구별하는 것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 ⑦ 남녀 선생님의 말투 차이를 구별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질문은 일반적으로 여자 선생님께서로부터 수업을 받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으나, 26명의 학생이 '네'라는 답을 하였다.
- ⑧ 9번 문항은 교과서나 책을 읽을 때, 남녀의 대화를 구별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대하여 39명이 긍정의 답을 하였다. 이어서 10번 질문에서는 30명의 학생이 말투를 보고 알 수 있었다는 말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말투를 구별할 수 있고 남녀의 언어차이를 인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다.

설문지를 통해서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인식조사를 살펴본 결과, 약 반 정도(49.6%)의 학생들이 비록 성별언어가 무엇인지를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남녀 언어의 특징을 어느 정도 구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3 한국어교재에 나타난 성선풃적 주제와 문화적인 편견의 문제

현재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의 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세 가지 교재를 선정하여 살펴보고, 교사들의 인터뷰와 비교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II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한국어 2 (연세대학교 출판부), 한국어——초급 II (일본출판사)를 선택하였다. 세 교재를 차례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교재를 편의상 A로 칭할 때 A 교재는 1과에서 27과로 구성되어 있고 4개 과가 질문형의 ‘-까?’의 제목이었고 5개 과가 ‘-다’로 끝나는 제목이었다. 그러나 본문내용에만 ‘-다’로 끝나는 문장이고 대화부분에서는 모두 ‘-요’ 또는 ‘-요?’로 끝나는 문장이었다. 19과 내용은 모두 격식체의 ‘-다, -까?’의 문장이었다. 20과는 존대어의 내용을 담고 있어서 격식체의 문체를 사용하였다.

두 번째로 선택한 교재를 B로 칭할 때, B 교재는 11과에서 20과로 구성되어 있다. B교재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어말 어미의 문제인 격식체어미와 비격식체 어미에 대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 다양한 문장을 다루고 있다. 남자-여자의 대화이거나 선생-학생의 대화이거나 모두 ‘-요?’ ‘-요’의 비격식체 또는 ‘-하/습니다’의 격식체를 교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주제 부분에 있어서 비교적 다양한 내용으로 엮어 있어서 A교재의 여성적인 내용과 비교가 되었다.

세 번째 교재인 일본에서 출판된 한국어 초급 II의 구성을 보면, 11과에서 25과 까지 비교적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예를 들어서 등산, 낚시, 수영 등 다양한 취미활동, 직장에 관한 내용, 면도하는 얘기 등 여성적인 내용인 쇼핑, 요리와 같은 토픽에 치우친 교재와는 차별성이 보이는 교재이다. 특히 ‘제18과 쓰레기’에서 처음 이사 온 다나카와 옆집부인의 대화는 서로 정중한 인사를 하는 이웃 간의 모습을 그렸다. 또한 ‘제 19과 분실물 신고’에서는 경찰관과 다나카의 대화인데 경찰관이 격식체의 대화를 잘 보여주었다.

비교적 두 번째 교재는 격식체와 비격식체 문장의 활

용을 교실 수업을 통하여 할 수 있으므로 여성적인 표현에 대한 구별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세 번째 교재는 다른 두 교재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문화생활이 잘 나타나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첫 번째 교재는 문장표현과 주제 면에서 모두 여성적인 것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설문조사의 결과에 나타난 교사들의 의견을 보면, “교수요목 중 ‘쇼핑’이나 ‘요리’ 등 비교적 여성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이미 화자가 여자라는 전제 하에 대화가 제시되기 때문에 교재가 ‘여성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과과정에 반영된 고정된 성역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말이 트이는 한국어’의 경우 약간은 여성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파출부 아주머니께 부탁하기, 아이 데리고 소아과 가기 등등) 이런 내용들의 경우 여성 중심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재에서 의사, 경찰관의 경우는 남자로 설정하고 있어 자칫 여성은 부드러운 어투로만 이야기 하고 남성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심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언급했다. 대체적으로 한국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현대 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한 채 제시된 한 예일 수 있고, 이렇게 여성과 남성의 낯은 성역할에 대한 내용은 외국 학생들에게 고정적인 관념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 이러한 교사들의 지적과 선별된 교과서 간의 비교를 종합해보면, 교육콘텐츠의 구성에서 문화-사회적 편견이 비교적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연구대상 교사의 89.4%가 한국어의 여성적인 표현과 또는 여성언어가 존재함을 인정하였으나 언어교육에 있어서는 큰 문제로 여기고 있지는 않았다. 19명 중 2명의 교사는 본인이 여성 교사이지만 전혀 여성적인 역할과 표현을 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도 되지 않는다고 하

였다. 그러나 남자 교사를 포함한 대다수의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교사들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다. 또는 문법적으로 오류가 없는 발화이지만 화행에 맞지 않는 어색한 문장을 만듦으로 해서 의사소통의 실패가 야기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한국어 교사가 여성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학생들은 교사의 말이 매우 중요한 입력 부분이므로 교사의 인식 부분이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장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인식도가 교재 편찬에 반영되어 학생들 지도에 필요한 지침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일선 교사들의 의견과 “여성적인 언어” 혹은 “여성의 언어”라는 정의가 한국어에서 다시 논의가 되어 교사들의 의식 고양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성적인 억양과 말투가 여성들만의 표현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남녀를 불문하고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나타나는 언어현상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또는 요즘 남자들이 여성화되고 여성 또한 사회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오히려 중성화되는 측면도 많은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영어의 경우는 Lakoff(1975) 이래로 성(gender)과 언어교육에 관련된 토픽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남녀의 화법의 차이는 초기 연구부터 주목되어 왔다[10]. 반면 한국어의 경우는 학자들의 선행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차이는 인정하지만 문제는 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했다. 이는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는 언어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나타난 교사들이 의견이 매우 다양하며, 여성적인 표현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견해와 여성적인 언어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한국어에는 반드시 여성만이 사용하는 ‘여성언어’가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중론으로 보인다. 그러한 견해의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인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 대상의 설문지 분석 다섯 번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인식을 하고 있지 않다면, 중급에서 고급 수준으로 언어의 사용이 다양해지고 문화와 사회에 대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때, 해당언어의 성별언어까지

구별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어는 자연스럽게 사회 안에서 통용이 되고 상호작용이 될 때 언어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라는 근본적인 말이 필요할 지도 모른다. 과연 중급 이하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성별 언어의 차이를 구별하여 지도할 필요가 있는지는 다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문맥 안에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지도는 문화나 사회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고, 더 관심을 갖게 하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가 외국어라는 한 가지 도구로서 취급되고 학습된다면 금세 한계에 다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 사회 그리고 언어가 함께 공존하는 가운데 상호작용이 이루어 질 때 언어의 기능과 본질이 제 몫을 할 수 있다고 보인다.

성별 언어차이에 따른 한국어 교재에 대한 인식은 교실언어학습에서의 적절한 사용과 교재 개발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교사의 성별 언어 차이에 대한 인식과 교재에 대한 연구과제는 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실수업을 하면서 과연 교사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성별언어를 지도하며,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 학생들은 한국어의 성별언어를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고 분석한다면 앞으로 외국어교육의 교실수업과 콘텐츠 개발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1] J. Sunderland, "Review article: Issues of language and gender in second and foreign language education," *Language Teaching*, Vol.33, No.4, pp.203-223, 2000b.
- [2] 한국여성개발원, *남녀평등의 이해*, 한학문화, 1997.
- [3] H. D. Brown,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York: Addition Wesley Longman. Inc. 2000.
- [4] R. Lakoff, *Language and Woman's Place*, New



York: Harper & Row, 1975.

[5] J. Coates and D. Cameron, *Women in their speech communities*, New York: Longman, 1988.

[6] 김선희, "여성어에 대한 고찰", 목원대 논문집, 제 19권, pp.111-128, 목원대학교, 1991.

[7] 이석규, 김선희, "남성어·여성어에 관한 연구", 어문학연구, 제2권, 목원대학교, 1992.

[8] 임홍빈, "국어의 여성어 연구- 국어사자료와 국어학의 연구", 문학과 지성, 1993.

[9] 김선희, *우리 사회 속의 우리말-여성어에 관한 고찰*, 한국문화사, 2001.

[10] D. Tannen, *Gender and Discours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11] J. Sunderland, "New understandings of gender and language classroom research: Texts, teacher talk and student talk," *Language Teaching Research*, Vol.4, No.2, pp.149-173, 2000a.

[12] 최혜정, *국어에 나타난 성차별적 표현연구*, 배재대 석사학위논문, 1999.

[13] 안상수,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성차별적 언어표현 사례조사 및 대안마련을 위한 연구*, 국립국어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설문지**

**00대학교 언어교육원 한국어과정**

본 설문지는 한국어과정 학생들이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한국어의 "여성적 표현과 남성적 표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교실 수업에서 배우는 것과 TV나 영화, 또는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것이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_\_\_\_\_ 성별 (남) (여)

1.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에는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과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 네 (2) 아니요 (3) 잘 모르겠다
2. 위 질문에서 '네'라고 답했다면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나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표현을 써주세요.  
여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 ( )  
남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표현: ( )
3. '여남', '어머니 아버지' 라고 말하지 않고 '남녀', '아버지, 어머니'라고 말하고 남자 의사는 '의사'라고 하면서 여자의사는 '여의사'라고 하는 것이 남녀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1) 네 (2) 아니요 (3) 잘 모르겠다
4. TV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녀의 직업 이름, 상대를 부르는 말 등에 남녀에 대한 차별이 나타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네 (2) 아니요 (3) 잘 모르겠다
5. 교과서 내용이나 교실수업에서 남녀의 직업 이름, 상대를 부르는 말 등에 남녀에 대한 차별이 나타난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1) 네 (2) 아니요 (3) 잘 모르겠다
6. 남자가 '어머니', '너무너무' 등의 말을 사용하는 것을 보고 여성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1) 네 (2) 아니요 (3) 잘 모르겠다
7. '-인데요' '-하고요' 등의 표현을 들으면 여성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하니다'로 끝나는 말을 들으면 남성적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1) 네 (2) 아니요 (3) 잘 모르겠다
8. 여자 선생님에게서 배울 때와 남자 선생님에게서 배울 때, 선생님의 말투나 표현에 차이가 있다고

느낌니까?

- (1) 네           (2) 아니요       (3) 잘 모르겠다

9. 책에 나온 대화를 보고 남자가 말하는 것인지, 여자가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까?

- (1) 네           (2) 아니요       (3) 잘 모르겠다

10. 위의 질문에 '네' 라고 답한 경우,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 (1) 대화 전체 문맥을 보고  
(2) 문장에 쓰인 명사나 형용사 등 어휘를 보고  
(3) 말투의 차이를 보고

### 저자 소개

박 덕 재(Deok-Jae Park)

정회원



- 1974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교육학과(문학사)
- 1978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석사)
- 1987년 2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박사)

• 1989년 8월 ~ 1990년 2월 : 미국 Hawaii 대학교 방문  
교수

• 1997년 8월 ~ 1998년 8월 : 미국 뉴욕주립대학교 객  
원교수

• 1981년 ~ 현재 : 광운대학교 영어학과 교수

<관심분야> : 외국어교육, 사회언어학